스웨덴 영화 광주서 인간애·희망 노래하다

15~19일 광주극장서 영화제
16·18일시네토크…전편 무료 관람
수교 60주년 다큐 '한국전과…' 상영도

개막작 '문 오브 마이 오운' 〈광주극장 제공〉

대한민국과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제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올해 제8회를 맞는 스웨덴영화제가 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이 함께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부산 영화의전당, 인천 명화공간주안, 대구 동성하트홀 등에서도 함께 진행된다.

올해 스웨덴영화제의 주제는 '맥박'이다.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도전과 갈등을 직시하면서도 인간애와 희망을 잃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문 오브 마이 오운'(A Moon of My Own)은 음악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스웨덴을 대표하는 싱어 송 라이터 테드 예르데스타드의 생애를 담은 영화다. 국내 개봉한 '오베라는 남자'로 친숙한 한네스 홀름이 연출했다. 작품은 스웨덴이 유로팝의 전성기를 주도하던 1970년대 후반으로 관객을 이끈다.

'말괄량이 삐삐'의 작가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일대기를 다룬 성장 영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는 당대의 편견과 맞선 여성작가의 도전과 열정을 보여준다.

복지 강국, 정치 선진국 스웨덴이 사회적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긴 영화 세 편도 상영된다. 영화 '비욘드 드림스'는 난관에 맞서는 미리야의 모습을 통해 여성들 간의 유대관계가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위력을 보여준다. 영화는 북유럽 최대 영화제인 예테보리 영화제에서 노르딕 영화 최고관객상을 받았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영화 '골리앗'은 주인공 킴미 역에 직업배우가 아닌 일반인이 배우로 등장해 2019년 스웨덴 굴드바게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을 수상했다. 시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남매의 아름다운 성장 이야기를 담은 영화 '가든 레인'은 주인공 에릭과 엘린의 비극적인 유년시절 이야기를 보여준다. 영화들은 삶을 조여오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이 끝까지 지키려 하는 꿈과 가치를 전한다.

또 힘들고 난감한 상황을 유머와 즐거움으로 승화시켜내는 아이들의 모험담을 담은 작품들도 상영된다.

'업 인 더 스카이'는 인형, 로켓, 쓰레기로 만든 보물들이 등장하는 독특한 가족영화다. '아마추어'는 프레임 이면의 의미까지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두 아마추어 소녀 영화감독의 내용을 담았다. 영화 '몽키'는 11살 소년 프랑크와 어느날 갑자기 프랑크의 집에 나타난 정체불명 긴팔원숭이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1957년까지 운영된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을 특별상영해 한국과 스웨덴이 맺어온 우호와 친선의 역사에 대해 살펴본다.

주한 스웨덴 부대사 등이 참석하는 개막식(15일 오후 7시)에서는 개막작 '문 오브 마이 오운'과 특별상영작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이 상영된다.

또 영화제 기간(16일 오후 3시, 18일 오후 7시20분) 동안에는 이수원 영화평론가와의 대화시간도 마련된다.

스웨덴 영화제 기간동안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무료관람이며 영화표는 영화제 기간 당일 광주극장에서 받을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中 저장성 정율성 음악회' 성료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이 최근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저장음악청'에서 개최한 정율성 음악회가 성료했다. 〈사진〉

이번 음악회는 광주가 배출한 '중국의 3대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리기 위해 진행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로 구성된 '정율성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지휘 변욱)와 성악, 피아노, 트럼펫, 바이올린 등의 협연자들이 정율성 작품 뿐 아니라 중국 관객에게도 친숙한 클래식 연주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주했다.

정율성의 작품 '망부운 조곡', '신산가 주제에 의한 변주곡', '아, 수려한 풍경이여', '연안송' 및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파파게나, 파파게노', '베니스 사육제 주제에 의한 변주곡', '차르다시' 등의 무대로 갈채를 받았다.

또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임용현 미디어 아티스트의 미디어 영상이 배경으로 송출돼, 음악과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2019 정율성음악축제는 정율성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추진되는 음악축제로 올해 '광주성악콩쿠르', '중국 저장 가무극원 초청공연', '광주 근대음악 뿌리 찾기 음악회', 'TIMF앙상블 초청연주회' 등을 진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의 '멍키열전' 공연 모습.

광주시립극단 '멍키열전' 나주시민 만나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 초청작
14일 나주문예회관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나상만)의 가족오락극 '멍키열전'이 방방곡곡 문화 공감 국공립우수공연 초청작으로 나주 시민과 만난다. 14일 오후 7시 나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은 전국의 우수한 공연을 문화 소외지역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한 사업에서 광주시립극단의 '멍키열전'이 우수공연으로 선정돼 나주 공연이 성사됐다.

이 작품은 세계문학작품 속 원숭이 주인공들을 통해 인간의 위선과 가식을 날카로운 풍자와 고난도의 신체동작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나상만 예술 감독이 직접 쓰고 연출했다.

침팬지 피터를 중심으로 결성된 유랑극단 'Monkey Players'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각종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극 중 원숭이들은 '서유기'의 손오공, '나의 이스마엘'의 이스마엘,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등 여러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들로 구성돼 각각의 개성을 살린 연기를 선보인다. 원숭이들이 결성한 유랑극단의 각종 에피소드가 무대를 꾸민다.

피터 역에는 최용진이, 빼아트리체 역에는 김고운이 출연한다. 이외에도 천효범, 이명덕, 정일행, 김계남, 남재영, 최규웅이 무대에 오른다. 무료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전남이 읽고 톡 하다' 한 책 문학기행 막내려

7개 대학·회원 등 참여
군산 역사박물관 탐방

'광주·전남이 읽고 톡 하다' 일환으로 진행된 '한 책 문학기행'이 전남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

전남대는 최근 광주여대, 남부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순천대, 초당대 등 7개대학과 지역 독서클럽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의 근대역사박물관, 채만식 문학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군산은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탐방회원들은 이번에 호남지역 수탈 현장을 둘러보며 역사적·문학적 가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책 문학기행'은 유적 답사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부터 는 광주·전남 지역대학도서관이 공동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전남대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독서후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12월에는 '한 책 독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늘 美 미시간 주립대 유영주교수 강연
전남대 BK21 지역어기반 사업단

해학과 풍자로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김지하의 '오적'과 사회적 혼란기 정치적 저항의 힘을 추동했던 '팟캐스트 나꼼수'의 에피소드들을 매체 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강연이 열린다.

전남대 BK21+ 지역어기반 문화가치창출 인재양성사업단(단장 신해진 국문학과 교수)은 11일 오후 7시 인문대 김남주 기념홀에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 유영주 교수(아시아언어문화학과·사진)를 초빙해 제25회 해외석학 초청강연을 가진다.

유영주 교수는 '저항과 매체'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김지하의 '오적'과 '팟캐스트 나꼼수'의 에피소드들을 매체 연구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또 1970년대 대안 매체에서 2000년대 디지털 매체로 이어지는 매체의 변천과정이 정치적 변화의 중요한 순간들과 결부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예정이다. 유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UCLA)에서 '1970년대 한국 문학에 나타난 이웃과 정치'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